

2010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2월 CBSI 예년 대비 상승 부진, 2개월 연속 70선 홍보

- 2월 지수 상승 과거 3, 5년 평균치 대비 매우 부진,
민간 건설경기 회복 부진이 결정적 영향 -

-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미분양 주택 수 재증가, 일부 주택업체 위기 등 민간 건설경기 회복 부진으로 예년에 비해 지수 상승이 부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 1월 이후 2개월 연속 지수가 70선에 머물렀다.
-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소폭(1.3p) 상승한 77.6을 기록함. 이로써 지수는 1월에 이어 여전히 70선에 머물렀으며, 지난 1월을 제외하고 전고점인 작년 7월(99.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1월 조사시 2월 지수 전망치가 1월보다 15.1p 상승한 91.4를 기록해 체감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실제 조사 결과는 그렇지 못함.
- 지난 3년 동안 통상 비수기인 1월 대비 2월의 상승 폭은 평균 4.0p(과거 5년 평균 상승 폭 8.6p) 이었음을 감안할 때도 올 2월 지수 상승 폭은 예년에 비해 부진한 것임.
- 이는 2월 공공발주 물량이 지난 1월 건설업체들이 가진 기대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2월에 주택업체의 위기설이 다시 대두되는 등 민간 건설경기의 회복이 여전히 부진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 한편, 3월 전망치가 88.9를 기록해 2월 보다 11.3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건설 비수기가 완전히 지나감과 동시에 3월부터는 재정 조기 집행에 의한 공공 발주물량 본격화를 기대한 때문으로 판단됨.
- 1, 2월 부진했던 공공 발주가 3월에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분양 주택 수 재증가, 일부 주택건설업체 위기 지속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건설 체감경기 향상의 관건은 민간 건설경기의 정상화 여부임.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 중소기업 지수가 소폭 상승한 반면, 대형업체 지수는 소폭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1월에 전월비 6.7p 하락해 기준선을 회복한 지 1개월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하락했는데, 2월에도 소폭(0.4p) 하락한 92.9를 기록해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2월 전체 지수 상승을 저지함.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3.1p 상승한 80.0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9월 이후 4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33.1p 감소)해 대형, 중소기업체에 비해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고, 지난 1월 지수가 작년 3월(66.7) 이후 10개월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대비 소폭(1.3p) 상승에 그쳐 56.9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50선에 머물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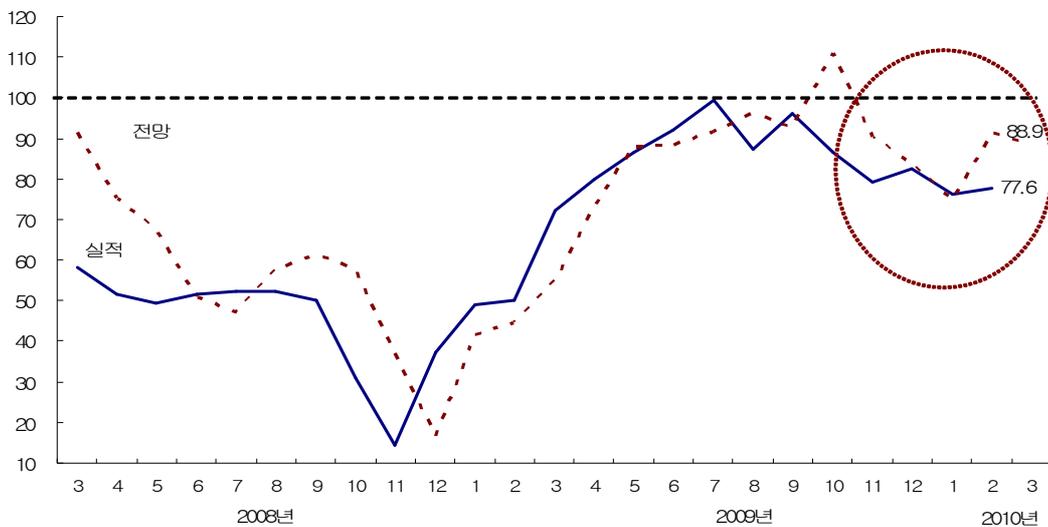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아직 양호한 가운데, 인건비 및 자재비로 인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금관련 어려운 상황이 2월 들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2.9p, 4.1p 하락했으나, 지수 자체는 103.2, 101.2를 기록해 작년 수주가 급증한 공공공사의 기성진척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사 수주가 저조한 영향으로 아직까지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수는 전월대비 1.5p 상승한 92.1을 기록해 어려운 정도가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자재비 지수도 2.7p 상승한 84.8을 기록해 어려운 정도는 다소 개선됐으나, 지수 자체가 낮아 그동안 급등한 자재비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4.3p, 1.2p 상승한 95.0, 88.3을 기록해 자금관련 어려운 상황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2월 CBSI 1.3p 상승, 예년 대비 상승 부진

-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미분양 주택 수 재증가, 일부 주택 업체 위기 등 민간 건설경기 회복 부진으로 예년에 비해 지수 상승이 부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 1월 이후 2개월 연속 지수가 70선에 머물렀다.
 -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소폭(1.3p) 상승한 77.6을 기록함. 이로써 지수는 1월에 이어 여전히 70선에 머물렀으며, 지난 1월을 제외하고 전고점인 작년 7월(99.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1월 조사시 2월 지수 전망치가 1월보다 15.1p 상승한 91.4를 기록해 체감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실제 조사 결과는 그렇지 못함.
 - 지난 3년 동안 통상 비수기인 1월 대비 2월 상승폭은 평균 4.0p(과거 5년 평균 상승폭 8.6p) 이었음을 감안할 때 올 2월 지수 상승폭은 예년에 비해 부진한 것임.

< 경기종합 BSI 추이 >



- 이는 2월 공공발주 물량이 지난 1월 건설업체들이 가진 기대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2월에 주택업체의 위기설이 다시 대두되는 등 민간 건설경기의 회복이 여전히 부진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 중소기업 지수가 소폭 상승한 반면, 대형업체 지수는 소폭 하락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1월	2월		3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80.0	86.6	92.2	99.3	87.2	96.1	86.4	79.3	82.5	76.3	77.6	91.4	88.9	
규모 별	대형	83.3	100.0	92.3	114.3	107.1	114.3	100.0	84.6	100.0	93.3	92.9	100.0	100.0
	중견	91.9	78.1	97.2	105.9	100.0	110.0	103.4	88.5	77.8	76.9	80.0	96.2	84.0
	중소	62.5	80.5	86.4	74.2	49.3	59.0	50.9	62.7	67.2	55.6	56.9	75.8	81.4
지역 별	서울	89.7	97.5	93.9	114.6	102.7	103.0	102.2	85.7	90.6	85.9	90.1	96.3	94.4
	지방	65.0	66.5	83.6	69.8	64.2	71.1	64.6	69.5	70.2	61.2	59.6	83.7	80.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대형업체 지수는 1월에 전월비 6.7p 하락해 기준선을 회복한 지 1개월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하락했는데, 2월에도 소폭(0.4p) 하락한 92.9를 기록해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2월 전체 지수 상승을 저지함.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3.1p 상승한 80.0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9월이후 4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33.1p 감소)해 대형, 중소기업에 비해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고, 지난 1월 지수가 작년 3월(66.7) 이후 10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인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대비 소폭(1.3p) 상승에 그쳐 56.9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50선에 머물.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대비 4.2p 증가한 90.1을 기록한 반면, 지방업체는 전월대비 1.6p 감소한 59.6을 기록함.

- 서울업체 지수는 지난 2009년 11월(85.7)부터 85선과 90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임. 지난 1월 85.9를 기록한 이후 2월에 다시 90.1을 기록 다시 90선을 회복함.
- 한편 지방업체 지수는 2009년 12월 70.2를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각각 전월 대비 1.2p, 1.6p 감소), 2월에는 59.6을 기록함.
- 작년 2월(48.5)이후 1년 만에 지수가 다시 50선을 기록했는데 지방업체의 상황이 2010년에 들어와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3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88.9를 기록함. 2월 보다 11.3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건설 비수기가 완전히 지나감과 동시에 3월부터는 재정 조기집행에 의한 공공 발주물량 본격화를 기대한 때문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와 중견업체는 각각 100.0과 84.0으로 전망하였으며, 중소기업체는 81.4로 전망함.
 - 지역별로 서울업체는 지수가 1월보다 3.3p 증가한 94.4으로 전망하였으며, 지방업체는 21.3p 증가한 80.9로 전망함.
 - 1, 2월 부진했던 공공 발주가 3월에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분양 주택 수 재증가, 일부 주택건설업체 위기 지속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건설 체감경기 향상의 관건은 민간 건설경기의 정상화 여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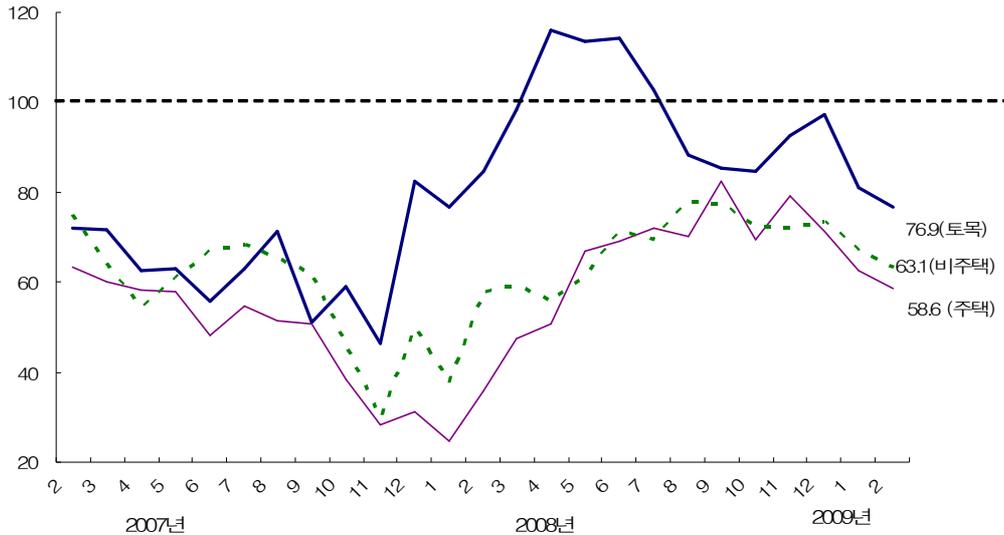
공사물량지수, 전월대비 3.1p 하락한 77.4 기록

- 공사물량지수는 모든 공종에서 지수가 소폭(3~4p) 하락해 전월대비 3.1p 감소한 77.4를 기록함. 여전히 토목물량이 다른 공종과 비교했을 때 다소 양호한 모습이며 주택물량의 부진이 가장 심각함.
 - 토목 물량지수는 공공 발주 지연으로 2달 연속 지수가 하락 전월대비 4.1p 하락한 76.9를 기록, 작년 1월(76.5)과 비슷한 수준임.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4.0p 하락한 58.6을 기록함.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70~80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해오다가 지난 11월 이후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결국 50선까지 떨어짐, 최근 주택경기가 다시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비주택 물량지수 역시 전월보다 3.7p 감소한 63.1을 기록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대·중·소 업체 규모별 물량지수는 각각 85.7 88.0 50.9를 기록함. 대형업체의 물량지수 감소(-14.3p)가 큰 가운데 중소업체의 물량지수가 통계적으로 소폭(2.5p) 반등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4.3p 감소한 85.7을 기록함.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14.7p 감소한 76.9을 기록했으며 주택 또한 전월보다 9.0p 감소한 64.3을 기록함.
 - 중견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소폭(0.5p) 감소한 88.0을 기록함. 주택물량지수가 전월보다 13.3p 감소한 66.7로 부진했지만, 토목물량지수가 87.0으로 비교적 감소폭(-5.0p)이 크지 않았으며 비주거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1.6p 증가한 69.6을 기록함.
 -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3.5p 증가한 50.9를 기록함. 지난 1월(48.4) 전월 대비 11.6p 감소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공종별로 토목 63.3, 주택 42.9, 비주택 37.7을 기록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건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7.4	85.7	88.0	50.9	85.3	65.8
	전망	90.7	85.7	104.2	81.4	93.9	86.1
토목	실적	76.9	78.6	87.0	63.3	78.9	73.9
	전망	78.7	61.5	95.7	79.7	76.0	82.3
주택	실적	58.6	64.3	66.7	42.9	61.3	55.0
	전망	69.7	57.1	87.5	64.0	67.8	72.3
비주택	실적	63.1	78.6	69.6	37.7	76.1	44.7
	전망	77.1	78.6	87.5	63.5	87.1	62.0

주 : 실적은 2010년 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3월 예측지수임.

- 서울업체 물량 지수는 대형업체의 물량지수감소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3.9p 감소한 85.3을 기록함. 한편 지방업체는 전월 보다 14.7p 증가한 65.8을 기록함.
- 2010년 3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2월 실적치 보다 13.3p 증가한 90.7로 물량이 2월 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공종별로 토목 물량지수가 78.7로 가장 높으며, 비주택 물량지수(77.1)의 증가(14.0p)가 두드러짐.
 - 토목물량은 2월보다 소폭(1.8p) 증가한 78.7로 전망함. 공종별로 토목 공사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 3월에도 지속되지만, 증가폭이 1.8p 불과해 토목공사의 증가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주택물량은 11.1p 증가한 69.7로, 비록 2월보단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지수가 60선으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편, 3월 비주택물량 지수는 77.1로 2월보다 14.0p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로 물량이 타 공종 보단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인력/자재수급 상황 아직까지 양호한 가운데,
2월 들어 자금 관련 어려운 상황 다소 개선**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아직 양호한 가운데, 인건비 및 자재비로 인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금관련 어려운 상황이 2월 들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2.9p, 4.1p 하락했으나, 지수 자체는 103.2, 101.2를 기록해 작년 수주가 급증한 공공공사의 기성진척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사 수주가 저조한 영향으로 아직까지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수는 전월대비 1.5p 상승한 92.1을 기록해 어려운 정도가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자재비 지수도 2.7p 상승한 84.8을 기록해 어려운 정도는 다소 개선됐으나, 지수 자체가 낮아 그동안 급등한 자재비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4.3p, 1.2p 상승한 95.0, 88.3을 기록해 자금관련 어려운 상황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95.0	100.0	100.0	83.6	102.3	84.5
		전망	92.9	100.0	88.0	90.0	97.7	85.9
	자금조달	실적	88.3	100.0	87.5	75.4	94.3	79.6
		전망	90.0	100.0	84.0	85.0	92.3	86.7
인력	수급	실적	103.7	92.9	124.0	93.2	106.5	100.5
		전망	103.2	85.7	124.0	100.0	101.5	106.7
	인건비	실적	92.1	100.0	96.0	78.3	98.5	83.0
		전망	92.4	92.9	100.0	83.3	94.2	90.1
자재	수급	실적	101.2	100.0	108.0	94.9	103.8	98.4
		전망	103.8	100.0	108.0	103.4	104.5	102.1
	비용	실적	84.8	92.9	88.0	71.7	89.6	78.0
		전망	83.8	92.9	88.0	68.3	91.2	73.4

주 : 실적은 2010년 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3월 예측지수임.